

# 한국 과학기술의 구심점으로 앞으로 30년 재도약 기대

## 한국과총과 과학기술30년

오늘 과총 3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난 30년동안 과총이 해온 일들과 지난 자취를 살펴보고 한국과학기술사에서 과총이 차지하는 위상은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는 한편, 가능하면 30년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앞으로의 30년은 또 어떤 것이 될 지, 어떤 과총이 되어가야 할 지에 대해 소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원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창립된 것은 1966년 아직 과학기술단체가 그야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던 시절의 일이다. 물론 이때쯤에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 그리고 막 시작된 과학기술연구소(KIST) 등의 발족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아주 높아지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 민간 과학기술단체 또는 학회들의 위상은, 해방 후 줄곧 그랬던 것처럼, 아주 미약한 형편이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앞으로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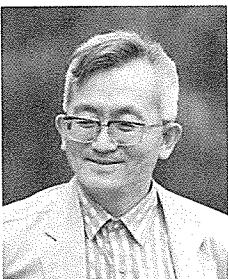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과학자 기술자들은 그 때까지의 친분에 따른, 또는 분야에 따른 여러 집단들을 규합

하여 목소리를 높일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런 목소리가 합쳐져 그런 단체들을 함께 모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체들의 연합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정부로서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마무리하는 1966년을 기하여 과학기술인들을 정렬시켜 국가발전의 과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도 그런 모임을 조성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 71개 학회·단체규합 66년 창립

그 결과 과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은 1966년 9월24일 지금부터 꼭 30년 전에 서울 신문회관에서 창립되게 된 것이다. 당시 몇명의 대표가 참석했는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전국 71개 학회 및 단체와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던 회원 5만2천9백42명을 대표하여 과총을 구성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회장으로서는 金允基를 뽑고,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 건의문을 보면, (1) 과학기술진흥법의 제정, (2) 과학기술자의 처우 개선, (3) 과학기술회관 건립의 보조, (4) 국무위원을 장으로 하는 과



朴星來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과학사〉

학기술행정기관의 설치 등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물론 이 4가지 건의가 과총탄생의 전부를 뜻한 것은 아니다. 과총은 6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열망의 표현으로, 경제 성장을 앞세운 국가 발전 전략에 과학기술이 동참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자각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고, 따라서 과총을 만든 당시 과학자 기술자들의 합의는 바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일에 과학자 기술자들 스스로가 앞장서겠다는 결의 그것이었던 것이다. 과총의 출범을 결의한 주체가 바로 1966년 5월 열렸던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집결체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에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식은 이미 1959년 열렸던 제1회 원자력학술회의에서도 표면화한 일이 있고, 1966년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과총을 창립하기로 결의한 것은 바로 그런 해묵은 의지를 관철한 일이었다.

과총은 5만명의 회원을 가진 과학기술단체의 대변기구로 30년 전에 발족하여 이제 5백만명 회원들을 가진 과학기술단체들의 모임이 되었다. 단순한 숫자놀음에서만 아니라, 과총의 지난 30년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의 역사였고, 또한 한국 과학기술 30년의 축도였으며, 한국 과학자 기술자의 꿈을 대표한 역사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 30년전의 4개항 건의 모두 달성

그러면 지난 30년동안 과총이 이룩한 일들로는 대개 어떤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꼽아볼 수 있을까? 사람에게 따

라 그 무게를 다르게 줄 수 있겠지만, 나는 먼저 과총이 그 창립총회에서 결의했던 정부에 대한 건의문 내용부터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건의문에 써 있던 4가지가 그 동안에 모두 달성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처의 발족은 1967년에 이미 달성되었고, 과학자 기술자의 처우 개선도 그 동안 상당히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30년 전의 첫 전국과학기술자대회 건의문이 과학기술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주라고 주장한 것을 돌이켜 보면, 지금의 한국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편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당시 그렇게도 과학자 기술자들이 회구했던 과학기술회관은 이미 1976년에 하나를 짓고, 그 후 다시 훨씬 멋진 두번째 회관까지 지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 과학기술자들의 건의 4가지는 이제 모두 달성되어 더 바랄 것이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더 바랄 것이 정말로 없어진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30년 전의 첫 과총 정관은 과총의 설립 목적을 분명하게 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개정된 정관이나 또 과총의 설립배경이 되었던 전국과학기술자대회의 결의 등을 통해 우리는 과총의 목적이 점차적으로 설정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명확한 설립 취지를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줄일 수도 있다. 즉 회원단체들의 지원과 협조 및 국민의 과학 수준 향상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과총의 활동범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온 사업들을 살펴보

면 모두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우선 과학정책의 개발과 건의가 있는데, 이 분야도 사실은 과학기술 단체들의 육성 상호 협조 등을 위한 국가적 또는 정책적 배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의 이런 노력은 충분히 효과를 내어 과학기술전담 행정기구를 만들라거나, 과학기술진흥법을 만들라는 등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처가 생기고, 그 밖의 과학기술 관련기관들이 더 나타나면서, 과총이 독점(?)할 수 있었던 과학기술 정책 건의 등은 점점 효력을 잃어간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 분야에서의 과총의 위치는 차츰 미약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두번째로 과총이 해 온 사업으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원래의 취지대로 과학기술 단체나 회원 학회들의 지원 사업이 있다. 이 부분에서 과총의 업적은 실로 눈부시다. 물론 이는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총 간부들의 노력 역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과총 탄생 10년도 더 지난 1978년의 경우 과총은 산하 40개 학회에 모두 1천만원의 지원금을 나눠준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으로 치면 정말 작은 지원금이었다. 그러나 올해 1996년에는 회원단체 2백51개에 모두 2억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 총액에서 자그마치 12년 사이에 20배 성장을 의미하는 셈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몇몇 학회를 골라 1억원씩의 집중 지원도 해보겠다는 말

이 나오는 오늘의 형편에서 볼 때 금석  
지감(今昔之感)을 가지게 된다.

우리 경제규모 성장과 과학기술인력  
의 괄목할 성장을 모두 고려할 때, 이  
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이 먼저 발달한 서양의  
경우를 보면 과학기술계의 여러 학회  
와 단체들의 등장과 성장은 그대로 그  
나라 과학기술의 성장 발전을 의미한  
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국에서의  
온갖 과학기술계 학회나 단체들의 성  
장 및 그 활동에 과충은 절대적으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우리는 알  
고 있다.

### 해외과학자초청학술대회

세번째로 들 수 있는 사업으로는 과  
학기술자들의 상호 협조와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원래  
과충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 모인 과학  
자 기술자들의 제1회 전국대회에서 그  
창립을 보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  
상 이런 분야에서의 과충의 활동 즉 전  
국과학기술자대회 및 그에 이은 비슷  
한 활동들은 오늘까지 몇차례 변모해  
가면서 연례행사로 치뤄져 왔고, 그 의  
의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는 없  
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처음에는 과충 밖의 행사로 시작되었  
던 전국과학기술자대회는 과충 탄생과  
함께 과충의 행사가 되었고, 1972년의  
제7회를 끝으로 사라져 갔다. 그 대신  
등장한 행사가 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라 할 수 있다.

이 모임은 과충과 재미한국과학기술  
자협회가 손을 잡아 시작된 우리 현대  
과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과업이었다.  
과충은 원래 1971년 12월 미국에서 결

성된 재미한국인과학기술자들의 친목  
단체였던 재미과협과 협조하여 1974년  
제1회 국내외 과학기술자들의 학술대  
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이다. 그해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 흥릉의 연  
구단지에서 과학기술계의 잔치를 열었  
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1백44명의 한  
국인 과학기술자들이 참가했고, 국내  
참가자도 5백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나,  
그 의미는 단순한 숫자에 있는 것이 아  
니었다.

이때 이미 한국은 후진성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수많은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은 차츰  
고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향수를  
느끼기 시작하던 시점이라고도 할 수  
가 있다. 게다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  
고 있던 한국으로서는 미국에서 활동  
하고 있던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의 도  
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점점 더 나타나  
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다.

바로 이런 필요성이 서로 만날 수 있  
는 장을 열어 준 데에 과충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겠다. 산업시찰 등을 통해  
조국의 달라진 모습을 느낀 재외한국  
인 과학기술자들은 더욱 조국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동 연구나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일  
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당연히 비슷한 학술회의는 해마다 거  
듭하면서 필요에 따라 모양도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동안 재미과  
협, 재구과협, 재일과협 등으로 구성되  
며 과충과 협조하여 학술회의를 주최  
했던 재외한국인과학기술자단체들은  
그 후 다시 세분화과정을 거쳐 이제 중  
요한 나라 모두에 한국인과협을 구성  
하기에 이르고 있다. 미국, 독일, 영  
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중국, 독립

국가연합, 호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  
탄, 우크라이나 등에 과협이 구성된 것  
이다.

원래 1974년의 첫 국제회의가 미국  
에 있던 한국인 과학기술자에게 조국  
의 실상을 보여주어 고국에 대한 사랑  
을 불러일으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면, 이제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런 단  
계를 넘어서 많은 재외 한국인 과학기  
술자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기  
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활동은 결국 한국 사회의 과  
학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  
동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활동은 중국의 개방이 가속화  
하면서 차츰 한국 과학기술을 북한의  
그것과 접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점에  
서도 조금씩 기여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1991년 중국에서 열렸던 중국국  
제과학기술학술회의에는 한국과 중국  
의 교포 과학기술자 이외에도 북한 과  
학자 기술자들도 자리를 함께 하여 남  
북교류의 가능성을 조금은 밝게 해 준  
바가 있다. 이 부분에서의 과충의 역할  
은 한국에서 과충만이 할 수 있었고,  
또 과충만이 해 놓은 업적이라 꼽아도  
좋겠다.

### 전국민 과학화운동 등 사업 활발

다음 과충의 주요 사업의 예를 더 들  
자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사업들을 들 수가 있다. 우선  
과충은 해마다 대한민국과학기술상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1966년의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가  
시작한 사업을 과충의 탄생과 함께 계  
승한 그런 일이다. 또 과학기술의 보급

을 위해서는 1972년부터 10여년 동안 새마을기술봉사단을 구성해 활동한 일도 있고, 1973년에 시작되었던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은 1979년에는 국민생활 과학화 행사를 시작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자들의 정년퇴직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원로과학기술자문단을 운영해 오늘에 이르고 있기도 하다.

또 1976년에는 『과학기술용어집』1권이 출간되고, 1978년에는 제2집이 출간되었으며, 1980년에는 『한국과학기술30년사』를 발간했고, 1983년에는 『한국과학기술인명사전』을 간행하였다. 원래 8천명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던 1983년판 인명사전은 1991년 재판으로 나왔는데, 1만2천1백명의 자료를 담고 있다. 어쩌면 먼 훗날 한국 과학기술사 연구에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과학기술의 현황을 짚어 보는데 가장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이다.

앞에 말한 과총의 사업들은 과총이 항상 중시해 온 과학의 대중화사업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1973년 정부가 주도했던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은 여러가지 이유로 별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목표도 분명하지 못했고, 방법론상의 혼란도 심하여 표류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을 지경이다. 사실 오늘의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고도의 전문화 경향을 생각할 때, 그 속에 살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덮어놓고 과학기술 대중화로 몰아가겠다는 노력은 서로 맞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과학기술 대중화의 전문가는 양성된 일도 없고, 그런 필요성을 한국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나마 그런대로 한국사회의 과학화운동에 어느 정도 이바지해 온 단체가 다름아닌 과총이기도 하다. 과총이 1968년 1월 창간한 『과학과 기술』은 그 대표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30년이나 되는 동안 과총과 삶을 같이 해 온 이 잡지는 아직 충분히 대중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충분히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평론지도 아니다. 더구나 과학자 기술자들이 누구라도 참고하지 않아서는 안될 정도의 정보를 실어주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잡지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총의 『과학과 기술』은 과총의 얼굴이 되어 영원히 이 땅의 중요한 과학기술 잡지로 기억될 것만은 분명하다. 아마 현재의 이런 형태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계의 역사를 다듬을 기회가 있을 때면 언제나 미래의 과학사 학자들은 이 잡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잡지에 무슨 글이라도 계속 내려고 애쓰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런 저 나름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과총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잡지를 더욱 훌륭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학과 기술』은 한국의 과학기술계에서 비영리 단체가 만들고 있는 유일한 과학잡지이기 때문이다.

### 첨단분야 학술활동 지원 확대

과총이 해 놓은 많은 업적 가운데 이상 몇 가지 예만을 들어 30년을 주마간산하는 일은 무척 부당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많은 사료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별하여 역사를 쓰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유명한 역사학의 격언이 말했듯이 “모든 역사는 오늘의 역사”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즉 과거의 평가는 바로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오늘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란 바로 내일의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은 예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기에 앞에서 골라 설명한 몇 가지 과총의 업적들은 사실은 그런 분야가 바로 미래의 과총의 진로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반영한 평가이기도 한 것이다. 정말로 지난 30년의 과총과 앞으로 30년의 과총은 어떻게 다른 것이 될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30년 전 과총의 출범과 함께 내 놓았던 건의는 이제 모두 달성되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30년동안 우리가 달성할 목표를 천명하여 그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내세울 새 목표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앞으로 다시 30년 뒤면 과총은 필요없는 단체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과총이 하는 일 또는 앞으로 개발할 새로운 분야의 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과총은 앞으로 30년에 다시 더욱 활기차고 중요한 과업을 등에 지고 나가 더욱 훌륭한 단체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신에 있다고 하겠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앞으로 30년의 변신의 향방을 나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 진단해 본다.

기존의 노력 가운데 단체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또는 정부는 과학기술의 끊임 없는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 나타나는 과학기술의 분야를 발견하여 재빨리 지원하고 육성하여 그런 분야가 세계의 첨단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분야를 빨리 알아내어 지원하는 작업은 역시 지금까지처럼 과충의 담당이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된다.

단체와 학회의 지원사업은 앞으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이미 거대학회로 자리잡은 학회의 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신 새로운 첨단분야 학회나 단체를 집중 지원하는 재빠른, 시대를 앞서가는, 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과학기술은 끊임 없이 새로운 변신을 통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발전해 가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리잡은 과학기술분야의 활동에는 주목하기 쉽지만, 새로운 분야의 등장에는 둔감하기 쉽다. 과충은 말하자면 새로 생겨난 분야, 불우한 분야, 내지는 기존의 평가 기준에 맞지 않아 소외당하는 분야를 찾아 그런 분야를 지원하여 과학기술의 고른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과충은 이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균형감을 실어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분야의 지원이라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긴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분야로 주목을 돌리는 기민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의 과학기술단체를 생겨나게 하는 산파역도 하고, 또 얼마동안 지원하며 지켜보아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자

생력을 기를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는 그런 과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과충의 위상은 이미 창립 당시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져 있다. 30년 전에는 과충은 우리나라의 거의 단 하나 뿐인 과학기술단체였다. 하지만 30년 후의 오늘 한국 과학기술계에는 수많은 다른 단체들이 생겨나 과충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과충은 30년 전처럼 가장 강력한 로비기관도 될 수가 없고, 가장 많은 열성 회원을 가진 단체도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과충보다 더 힘 좋고 돈도 많은 산하 단체가 여럿 있을 정도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과충만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회원단체들의 구성과 발전을 주도하는 일이다. 회원단체들에 대한 주도적 지원 등을 통해 과충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바람직한 것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통일대비 남북과학자 교류를

다음 두번째로 과충이 해야 할 일은 <통일 준비의 과충>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충은 전국과학기술자대회—국내외과학기술자회의—그리고 남북과학기술 교류 추진을 통해 이 방면에서 가장 훌륭한 준비를 해 온 셈이다. 세계 여러 지역의 교포 과학기술자들을 모으는 일에 성과가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북한 과학기술자와도 직·간접의 접촉이 일부 성과를 거뒀던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를 종합하고 더 확대하여 진정한 과학기술의 민족적 통합 노력

을 추구할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은 남과 북이 합쳐진 상태로 세계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날을 준비하는 과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충의 다음 30년은 또한 그 세번째 과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충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로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을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과 기술』 원래의 취지대로 <국민의 과학화> 또는 <과학의 생활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성을 찾아가야 하겠다고도 말을 바꿀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충의 과업일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다른 관변단체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국민의 자발적인 과학 단체로 생겨난 전통을 딛고 서 있는 과충만이 해 낼 수 있는—우리의 최대 과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 『논어』 위정편에 의하면, 공자는 30에 비로소 자립했다(三十而立)고 한다. 인간이 30세면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조직체도 30년쯤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다음 30년을 살아갈 새로운 좌표를 스스로 만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과충이 지난 30년의 뛰어난 업적을 굳게 딛고 서서, 앞으로 30년 아니 그 앞으로의 미래까지를 내다보는 훌륭한 단체로 성장 발전하여 한국 과학기술계의 앞날을 더욱 밝게 비추주는 등불이 되기를 빈다. 지난 30년동안 과충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그럼으로써 한국 과학기술의 전진을 위해 힘쓰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